

## 한미약품 임시주총 '3자연합' 승리

##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 리더십 확인”

3자연합 6명, 임종윤·종훈 측 4명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 기존 유지  
한미사이언스 위수탁 관계 지속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연합' 측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1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3자연합' 측인 한미약품의 박재현 대표이사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는 기존대로 3자연합 측 6명, 임종윤·종훈 측 4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미약품 이사회를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형제 측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 결과, 박재현 대표 해임 안건은 출석 주식 수의 53.62%에 해당하는 547만9070주가 찬성하고, 46.32%인 473만3105주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신동국 이사 해임 건은 출석 주식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송파구 교동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수의 53.64%인 548만1320주가 찬성, 46.30%인 473만1474주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주총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6.7% 이상이 동의한다는 득표율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1268만214주였고, 출석률은 80.59%로 1021만9107주였다.

해당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후,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공고한 리더십을 확인해 주신 주주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재현 대표이사는 “사실 한미약품 경영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맺고 있는 업무상 위수탁 관계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제 측이 문제 제기한 한미약품 내 신규 법무팀이나 인

사팀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기존 틀’ 안에서 존재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재현 대표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대표 이사를 비롯한 한미약품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총 8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박 대표는 “매우 답답하다”며 “고소·고발을 취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주주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견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주사 대표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한미약품그룹 전체가 최선의 경영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2년 연속 늘어

공정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감시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통신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 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정보통신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의 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알리바바, 백화점 팔고 e커머스 공세 '집중'

백화점 '인타임 그룹' 1.4조에 매각  
이달 초 韓 에이블리에 1000억 투자  
공격적 해외전략 시 국내기업 위협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축소하고, 온라인 중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패션 플랫폼에 1000억 원을 투자해 e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자국에서는 백화점 체인 '인타임'을 매각하며 사업 재편을 통해 e커머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백화점 체인 '인타임(銀泰) 그룹'을 중국 의류업체 야고르 패션에 약 1조4000억원에 매각한다. 이는 알리바바가 인타임을 인수한 지 7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매각은 알리바바가 큰 손실을 감수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번 매각으로 알리바바가 약 1조83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알리바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신유통' 전략을 내세워 지난 2017년 인타임을 시작으로 대형마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 모습. /뉴시스

트 체인 '다룬과', '선 아트 리테일 그룹'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중국 경제 불황,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으로 오프라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이번 매각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e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한 알리바바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알리바바의 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국내 e커머스 시장에 강력한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패션 e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하 에이블리)은 이달 초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가 한국 e커머스 플랫폼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첫 사례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위축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고려하면, 거액의 외부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국내 e커머스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바바가 중국 내 오프라인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e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해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알리바바의 공세가 심화된다면 국내 e커머스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선 기자 wotjs4187@

##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1.13% 추가 확보

고려아연 “적대적 M&A 저지할 것”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지분 1%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미 대응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 취득,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주식 기준 46.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유재량 매매(CD)'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13%, 23만4451주를 장내 추가 취득했다. 평균 취득단가만 125만원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주당 194만원에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MBK의 매입 행위는 과거 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과 89만원에 대해 적정가격보다 높아 배임이라

고 주장한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 두 차례 재담가처분을 제기하며 시장교란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온갖 위법 행위로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호도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가 공개매수 이후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는 장내 매수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왔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과 임직원이 푹푹 뭉쳐 적대적M&A를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이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투기적 약탈자본이자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주요 주주 등이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진 MBK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